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7호 【루계 제25340호】 주체105(2016)년 7월 15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리자

20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백두대지에 대자연개조의 거세찬 동음 높이 울려퍼진다

삼지연군 농장들의 토지개간에 떨쳐나선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 돌격대원들

삼지연군 농장들의 토지를 기계화포전, 규격포전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토지정리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에서 삼지연군의 덕지대들에 개간의 첫삽을 박은지 70여일만에 400여정보의 잡관목처리와 800여정보의 1회깊이갈이를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돌격대원들은 기본전투과제를 수행하면서 홍제수, 소백산, 백삼농장들의 거름수송과 흙깔이, 밭갈이를 도와주었다.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이 지난 3월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에 전개한지 몇달 안되는 사이에 이룩한 성과는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당의 결정과 지시를 즉시에 집행하려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는 농업생산의 기본수단이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던 주체41(1952)년 9월 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제일 앞선 단위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량강도에서는 삼지연군토지개간에 의의를 부여하고 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려단정치부에서는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군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토지개간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도록 하였으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로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이 펼쳐 나래치게 하였다.

려단지휘부에서는 수십대의 불도젤들과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동전기재들과 련결농기계, 인원긴급기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농장별개간계획작성과 기술력량편성, 사회주의경쟁요강발표, 현지에서의 보여주기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올해 개간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지난 3월 수많은 인원과 동전기재들을 삼지연군으로 긴급기동시킨 려단에서는 10여개의 병실들과 수리기지, 부업기지들을 꾸린데 이어 불도젤출동식과 함께 일제히 개간전투에 진입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이른새벽부터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수림진펄지대를 파헤치면서 습지대를 개간하여 기계화포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를 벌렸다.

혜산시, 갑산군대대에서는 마력수가 높은 불도젤들을 제때에 기동시켜 전진배치하고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개간전투의 첫시작부터 련일 실적을 올렸다.

김형직군, 백암군대대에서는 깊이갈이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동전기재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매일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려단에서는 토지개간을 설계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1회깊이갈이를 결속하고 2회깊이갈이와 정비를 실속있게 하여 만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삼지연군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게 할 당의 뜻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대대들에서는 일정계획을 바로세우고 그날과제는 그날로 무조건 집행하면서 거리가 먼 포전들에는 현장지휘부를 전개하고 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글 특파기자 전철주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김일성종합대학의 여러 대상공사 힘있게 추진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에 떠받들려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의 3호, 4호교사와 15호, 16호기숙사, 화학부교사, 인쇄공장건설 등 여러 대상공사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골조공사가 결속된 3호교사건설장에서는 내부미장공사가 80%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30층짜리 4호교사의 골조공사실적은 70%계선, 내부미장공사실적은 30%계선을 넘어섰다. 가, 나동으로 된 15호기숙사와 한개 동으로 된 16호기숙사의 골조공사에서도 눈에 띄는 실적이 기록되는 속에 새 기숙사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 편리, 선 미학성의 원칙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을 발기하시고 려명거리건설에서 기본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건설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여러 대상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3호, 4호교사건설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은 일별, 주별, 월별로 전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2개소에 혼합물생산기지를 전개해놓고 혼합물운반차와 압송기에 의한 혼합물보장을 련속 따라세움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공사의 속도를 높이고있다.

건축면적이 보통고층건물의 2배나 되는 텅지른 4호교사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3개층에 해당한 철근가공을 선행시키고 앞선 휘틀조립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하루반동안에 한개 층씩 골조를 올려세우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이곳 단위에서는 내부미장도 동시에 내밀어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혁신의 불바람은 15호기숙사 가동, 나동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건설에 참가한 함경남도려단에서는 다른 단위들보다 공사에 한달이상 늦게 진입한 어려운 조건이지만 시공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려단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불리한 지형조건에서도 견인불발의 의지로 낮과 밤을 이어가며 기초굴착을 하였고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글발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억세게 다진 기초우에서 골조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쳐 50%계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동차기중기, 대형굴착기, 수십대의 수직권양기 등 기계화수단들이 동원된 가운데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기술학습, 기술전습이 부단히 진행되여 공사속도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빨라지고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와 도의 여러 련합기업소들, 각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이곳 전투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인쇄공장건설을 맡은 영풍무역국에서는 전투원들의 대부분이 건설경험이 부족한 조건이였지만 작업전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하루사업총화를 통한 우결함분석, 경험교환 등을 적극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전투원들모두를 불가능을 모르는 자강력의 소유자들로 준비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전투원들속에서 기존공법을 타파하는 대담한 기술혁신안들이 나오고 현실에 적극 도입되였으며 짧은 기간에 인쇄공장골조공사를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지금 인쇄공장건설장에서는 내외부미장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련일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16호기숙사, 화학부교사건설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공사실적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를 심장깊이 새겨안은 건설자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김일성종합대학의 여러 대상공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현지보도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난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함흥모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총정의 2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경공업성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사상의 힘,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불끓는 현장들에 나가 정치사업을 침입식으로 들이대고 종업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생산자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고 걸린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혹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부기사장 인명화동무와 김영진, 김광철, 유화룡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로동자들은 새 고압염색공정을 꾸려놓은것을 비롯하여 최근 몇달동안 근 20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가 시작되여 또다시 직장별, 작업반별, 기대별사회주의경쟁이 벌어지는 속에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1직포직장의 선군시대공로자 정옥실, 직포준비직장의 공훈방직공 채옥선동무와 김은해, 류정숙, 박송희동무들이 2년분 계획을 완수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1직포직장의 한련화, 리명주, 김복실, 전철방직직장의 주영미동무를 비롯한 20여명의 로동자들은 지난 6월 30일까지 년간계획을 1.7배로 넘쳐 수행하였다. 직포준비직장의 리향미, 김복남, 주봉숙, 1직포직장의 조은희, 김향심, 방모방직직장의 김금화, 편직사직장의 고복실, 전철방직직장의 리정희, 홍명월동무를 비롯한 30여명의 혁신자들도 7월 10일까지 년간계획을 1.4배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당의 전투직호소를 높이 받들고 총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방모방직직장의 엄명옥, 김인천, 박경진동무들과 2직포직장의 유금수, 김남희, 3직포직장의 손옥순, 최영숙동무를 비롯한 20여명의 기대공들과 수리공들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세웠다.

완성직장과 제지모포직장, 심을염색직장, 편직사직장의 수십명의 녀성로동자들도 여러기대말아보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상반년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내달리고있다.

총정의 200일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만리마기수의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박동석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수송성과 확대

청진철도국에서

청진철도국에서 200일전투의 불길드높이 중요물동수송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70일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점령한 그 기세로 200일전투에 진입한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려 6월에만도 동발나무수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십차량이나 더 늘이고 주체비료생산에 필요한 석탄수송계획은 2.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이달에 들어와 철도국에서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김철, 성강을 비롯한 금속콤비나트들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데 필요한 물동수송에서도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결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철도국에서는 200일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을 예견성있게 펼쳐놓았다. 일별, 주별전투목표가 높이 세워진 가운데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 예비와 가능성을 효과있게 동원하여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러한 작전밑에 철도국에서는 200일전투의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며 중요물동수송에서 련일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있다.

철도국일군들이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내달리며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그들은 각 화물역들과 기관차대, 객화차대들에 내려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면서 중요화물수송렬차들에 올라 수송전사들과 운행길을 함께 이어가고있다.

철도국 수송지휘처의 사령원들은 각 기술역들과 상하차역들의 짐확보상태와 화물렬차들의 움직임상태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중요물동을 실은 화물렬차들이 대고조전투장들을 향하여 전속으로 달리도록 하고있다. 처장 김희정동무는 좁은철길과 린접한 중요화물역에 내려가 현지에서 수송조직을 기동적으로 짜고들어 서부지구 화력발전소용석탄생산을 맡은 탄광들에 대한 동발나무수송을 늘이는데 한몫하였다.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각지 기관차대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앞선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생산공정들을 일떠세워 많은 량의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이 나날에 하루전투계획을 2배, 3배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자들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나고 한달 남짓한 사이에 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일수 있는 12종에 천수백개에 달하는 부속품을 자체로 만들어냈다. 증송투쟁의 앞장에는 청진, 철송, 길주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서있다.

철도국아래 객화차대들에서도 치렬한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화차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각 기술역들과 화물역의 수송전사들은 싸우는 고지에 총포탄을 수송하는 심정으로 상하차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짐임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화차들의 회귀일수를 단축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화물렬차에 대한 편성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소운전의 비중을 높이면서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고 도착한 화물렬차들을 지체없이 떠나보내고있다.

결과 철도국에서는 200일전투의 첫달에 기관차들의 실동기대수를 종전에 비해 1.5배로 늘이고 화차회귀일수를 철씬 단축하여 중요물동수송량을 부쩍 끌어올리였다.

철도국의 책임일군들은 200일전투 첫달총화를 통하여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중요물동수송에서 일대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보다 진공적이며 목적지향성있는 작전들을 펼치고있다.

현지보도반

우리 식의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 개발

나라의 산림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가 개발되였다.

이 체계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산림자원의 조사, 장악, 분석, 평가체계로서 산림자원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이번에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가 우리 식으로 새롭게 연구개발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나라의 산림실태를 신속정확히 조사장악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산림자원리용을 과학적으로, 통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산림자원관리분야에서도 세계선진수준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첫 림상조사대를 무어주시고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산림자원조사를 조직지휘하시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령도의 전기간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산림자원관리에서의 세계적흐름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수십년전에 전자계산기와 항공 및 우주사진기술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산림자원조사설계사업과 산림경영활동에 받아들일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많은 자금과 로력, 시간을 요구하는 어렵고 복잡한 산림자원관리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전국의 산림자원을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 평가함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가과학원, 유원지총국, 림업성, 농업성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산림자원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돌격대원들은 이 과정에 산림자원량분석의 기초로 되는 전국적인 산림고정표준지조사체계의 확립과 수천개에 달하는 방대한 산림고정표준지 공간자료기지의 구축, 위성자료에 의한 산림지종 및 수종분류평가방법과 산림축수지표계산방법의 확립, 전국산림토지공간자료기지와 전국산림기후공간자료기지의 구축, 전국산림위기 및 희귀식물에 대한 위기등급화와 지도화의 실현, 지형모사에 새로운 음영립체지도작성방법의 도입을 비롯하여 기초자료조사와 자료기지구축, 실용화단계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였다.

하여 이들은 불과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위성자료해석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 산림고정표준지조사방법에 의한 전국산림수자공간자료기지구축을 완비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 식의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를 개발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는 거대한 생산적 및 환경보호적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자원조사의 객관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조사주기와 로력을 철씬 줄이며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정가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 과학성을 철씬 높일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산림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정량적인 분석과 평가를 진행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각종 주제의 지도작성과 산림부문 통계작성에서 직관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과학적인 산림복구전투계획과 조직, 장악, 지휘를 제때에 따라세울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전면조사와 국부조사, 산불진화 등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심채택을 강력하게 지원할수 있으며 각이한 년대의 위성사진자료를 해석한 산림피복도들을 분석하여 산림의 현실태와 력사적변화과정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전망적인 산림경영발전방향을 규정할수 있게 한다.

돌격대원들은 개발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나라의 산림자원조사기술과 산림경영기술을 세계선진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웠다.

전국산림자원관리정보체계의 개발이 가지는 의의는 비단 여기에만 있지 않다.

이 과학기술성과는 이미 전국산림전실총계획작성에 도입되였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로 하여 산림복구전투를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과 응대한 대자연개조구상실현에서 전환적돌파구가 열리였다는데 이번 개발사업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돌격대원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산림복구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낌으로써 과학기술력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적성과로 확증하였다.

이번 개발과정을 통하여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점령 못할 그 어떤 과학기술의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로 얼마든지 빠른 기간안에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을 세계첨단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는것이 온 세상에 다시금 뚜렷이 과시되였다.

주체적과학기술발전사에 특기할 이 자랑찬 성과는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과감한 총공격전, 총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강협웅

주체의 사상론을 더 높이 추켜들고 당대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의 기치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필승불패성과 양양한 전도는 위대한 지도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데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강령과 전략적로선들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를 다시금 뚜렷이 천명한 의의깊은 사변으로 된다. 사상의 총진군, 강력한 사상공세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서 기본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고 승리와 번영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해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진 인민만이 진정한 강국을 건설할수 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동방일각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성공탑을 높이 세우고 자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가장 비참한 식민지약소국이였던 조선이 오늘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강위력한 불패의 강대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있기에 우리는 중첩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그처럼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해올수 있었다.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인민의 영원한 행복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의하여 담보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의 정표와 면모, 그 건설의 합법칙성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자면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해명이 주어져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람중심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강국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밝혀주고있다. 여기에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나라가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사상도 있고 자주성은 강국의 기본징표이고 일심단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며 군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라는 사상도 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상들이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사상과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강국의 본질적특징도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사상리론의 빛나는 계승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전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칙적로정,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과정에 견지해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들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근본방도와 전략적로선들, 미래의 사회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까지 밝혀주고있는것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긍지높이 총화하신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선군혁명로선,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사상과 로선들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침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다.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오늘 강국건설은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가운데는 자기 나라의 특수한 자연지리적조건이나 문화의 유구성, 발전된 경제력이나 방대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은 있어도 전반적국력이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나라는 없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있음으로 하여 일찌기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오늘은 최강의 정치군사력에 토대하여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높은 령마루로 솟구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에 관한 리론과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건설에 관한 옳바른 로선과 정책, 사회주의문화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상과 리론들이 제시되게 되였다. 당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로부터 반제계급투쟁, 사회주의생활양식과 현시대 인민들이 지녀야 할 세계관과 인생관, 대외관계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특출한 지위와 비상한 견인력이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요구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이 땅우에 천리마의 시대, 속도전의 시대를 펼쳐놓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천지개벽을 안아온 창조와 비약의 무기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에 의하여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열려지게 되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있고 계속혁명에 관한 사상, 종자론과 속도전에 관한 사상,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사상, 대중운동에 관한 사상 등이 밝혀져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가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영웅적기적의 신화들로 수놓아지게 한 근본원천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200일전투의 공격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며 새로운 시대속도,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것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로선,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는데 그 비결이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그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0일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힘있게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김 정 수

사상의 무기를 메고

◇ 수도 평양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얼마전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민들이 내놓고 자랑할만 한 큰일을 또 하나 했다고, 역시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최근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답게 일을 잘하고있으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나라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평양시버섯공장과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평양시에서 급지급직한 자랑거리들을 련이어 펼쳐놓을수 있은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당위원회가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모든 승리와 성과의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우리 당의 사상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해온데 있다.

사상의 무기를 메고 군중속으로, 이것이 시안의 일군들의 사상관점이며 투쟁기풍이다.

◇ 일군들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이끌어나가는 정치활동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이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의 일군,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면 마땅히 주체의 사상론의 철저한 구현자,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여야 한다. 직위나 간판으로가 아니라 사상을 틀어쥐고 군중과 함께 호흡하며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군들이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1950년대 천리마대고조의 불길도 사상개조, 인간개조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지펴졌고 1970년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와 1990년대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도 혁명의 북소리, 맹렬한 사상공세로 안아왔다. 그 나날 우리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때낭을 메고 공장과 농촌으로, 심심산골의 마을들로 달려나가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정치활동을 벌리였다. 꺼지지 않는 홰불이 되고 우렁찬 나팔이 되여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일군들의 헌신적투쟁은 온 나라를 집단적혁신의 경쟁열풍, 애국의 열정으로 들끓게 한 원천이였다.

정치활동가, 여기에 우리 일군들의 사명과 본분이 있고 더없는 영예와 보람이 있다.

◇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닭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것은 우리 당의 독특한 사상중시의 지론이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모든 일군들이 사상사업을 중요한 혁명임무로 간직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200일전투의 분분초초가 사상의 위력이 최대로 분출되는 위훈창조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협동법과 수천척지하막장, 파도세찬 날바다우에서도 일군들의 화선선동의 목소리가 울려나와야 하고 새로운 시대속도, 만리마속도가 창조되는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인민경제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투장들에도 늘 군중과 어울리는 일군들이 있어야 한다. 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서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고 계속전진, 계속혁신, 련속공격의 기상이 높뛰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사상사업을 확고히 선행시켜나갈 때 우리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이 천백배로 분출되고 당대회결정관철에서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게 될것이다.

온 사회에 차넘치는 혁명적학습기풍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금성정치대학에서—

—평천일용필수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참신하게

오늘의 200일전투는 일대 사상전이다. 사상전선이 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군민이 일떠선것만큼 새로운 영웅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조국의 전진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전선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세대들처럼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은 기적창조의 근본원천이다. 대중이 사상정신적으로 발동되기만 하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수 있다. 인민대중의 이러한 창조적힘을 충폭발시켜나가자면 사상사업을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사상사업은 대중을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은 지금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다.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이 제시한 과업관철에로 사상사업을 지향시키고 공세적으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발잔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의 돌발적인 사상사업이나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는 뒤거둠식의 사상사업이 아니라 쐐기를 박아 박달나무를 짜개듯이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중단없이 사상전의 련속포화를 들이대는데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기본열쇠가 있다.

려명거리건설장의 벅찬 현실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건설장에서는 당에서 정한 시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려명거리건설을 끝내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가 벌어지고있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이 총동원되고 밤낮이 따로 없이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곳곳에 세워진 지판판들과 붉은기들, 활발히 벌어지는 방송선전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비롯하여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강력한 정치사상공세는 온 건설장을 만리마속도창조의 혁명적기상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200일전투가 시작된 첫말에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수십동의 살림집골조공사를 완공하고 공공건물공사에서도 자랑찬 성과를 거둘수 있은 비결은 바로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드세차게 벌린데 있다.

사상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것은 그 실효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상사업은 창조적인 사업이다. 사람들은 각이한 준비정도와 다양한 심리를 가지고있으며 맡고있는 혁명과업도 다르다. 뿐만아니라 사상사업은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된다. 그렇기때문에 사상사업을 한가지 처방을 가지고 틀에 맞추어 도식화하여서는 실효를 거둘수 없다.

청천강제단식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창조된 사상사업방법들이 주목을 끌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모든 단위에서 매달 25일 밤 12시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그달 전투계획수행정형을 보고올리는 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총정의 보고를 올리는 그 순간순간은 모든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자기들의 량심을 총화하고 위훈창조의 맹세를 다지는 계기였으며 말없는 사상사업과정이였다. 그뿐이 아니다. 중요기념일들마다 진행한 대합창공연과 우등불모임, 장천서사시 《백두산》과 서정시 《어머니》랑송모임, 단계별전투목표수행정형을 총화하면서 진행한 려단들의 분렬행진, 수시로 조직한 전설장면참관사업과 경험교환회를 비롯한 특색있는 사상교양사업들은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킨 원천이였다.

사상사업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격동될수 있게 때와 장소를 가림없이 능동적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 각이한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선전물을 하나 만들어도 생동하고 감화력있게 만들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황과 조건에 맞게 작업의 쉼참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사상교양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부단히 새로운 사상사업방법들을 탐구하고 적극 활용해나갈 때 대중의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주체의 사상론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감으로써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홍 병 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27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 축전을 보내였다

끼갈리

제27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앞

나는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속에 제27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열리는것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가한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인권의 해, 2016년》을 기본의제로 하고 대륙의 정치, 경제적통합, 평화와 안정,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이번 수뇌자회의가 모든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열의속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아프리카동맹 및 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재확언하면서 이번 수뇌자회의가 아프리카의 번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7월 13일 평 양

자자구구 가슴깊이 새겨안도록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담긴 사상과 내용을 일군들과 탄부들모두가 깊이 새겨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세포들에서 탄부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 당 제7차대회 보고를 부문별로 나누어 독보하고 학습담화도 진행한 다음 하루일을 시작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모든 당조직들에서 당 제7차대회 보고의 기본체계를 사무실들과 갱, 직장들에 써붙여놓아 모두가 일상적으로 보고 학습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문답식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 제7차대회 보고의 정신과 내용을 자자구구 뼈에 새기도록 하고있다.

특히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과 결부시켜 전투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그 관철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학습을 실화시켜나가고있다.

일군들과 초급선전일군들이 누구보다 당 제7차대회 보고를 깊이있게 학습한데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보고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탄부들에게 널리 해설선전하도록 하고있다.

로동통신원 연 전 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평양 7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14일 사회과학원에서 진행되였다.

사회과학원 원장 리혜정을 비롯한 과학, 교육,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일군들,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억년 드놀지 않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와 투쟁강령을 제시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과학리론적으로 해설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력사의 분수령으로 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되는 영광의 대회》이라는 제목으로 조선혁명박물관 제1부관장 교수, 박사 박경식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확고히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해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그는 장기간에 걸친 치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한것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견지하여오신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 있다고 말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여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그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길이 빛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진로를 명시한 백승의 기치》이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학장 교수, 박사 조용봉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최고강령을 엄숙히 선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로선을 명시한 강령적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고 최후승리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며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기본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여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강력한 국가건설을 통하여 이룩되는 사회주의위업완성의 합법칙성이 새롭게 밝혀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가 우리 혁명의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천명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 뚫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필승의 보검을 가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 위대한 정치대강》이라는 제목으로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교장 교수, 박사 신영훈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우리가 점령하여야 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을 뚜렷이 밝힌 불멸의 대강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사상은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의 면모를 세계앞에 펫펫이 펼쳐보이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펴나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를 명시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비범한 사상리론적에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와 그 수행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전인민적인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리론선전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은 사회과학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소장 박사 서성일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인 사회과학자들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사상과 로선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힘있게 론증하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리론선전사업을 진공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천만군민의 총공격열의는 비상히 앙양되고 최후의 승리는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더욱 깊이 심어주는데 중심을 두고 모든 리론선전활동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확고히 지향시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토론자들과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다짐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200일전투장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새겨간다

석탄공업부문에서 타오르는 자력갱생의 불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200hp권양기 제작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기계공장에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기계공장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마련되였다.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이 서부지구 탄광들의 구체적작업환경에 맞는 200hp권양기를 자체로 제작하여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서창청년탄광에 보내주었다.

공장에서 200hp권양기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련합기업소갱막장들의 구체적실정과 관련된다.

채탄장들의 채굴심도가 나날이 깊어짐에 따라 석탄운반능력을 높이자면 대다수 막장들에서 100hp권양기 두대를 직렬로 련결하는 2단사갱운반로선을 형성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런데 사정의 중간에 권양기장을 새로 설치하고 그것을 정상운영하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덕성탄광의 갱막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이 문제의 절박성을 더 깊이 느낀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전인능력이 높은 권양기를 자체로 제작하여 중간권양기장을 없앨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당책임일군은 지체없이 덕천탄광기계공장에 내려가 그곳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마주앉았다. 련합기업소갱막장들의 실태에 맞게 200hp권양기를 자체로 제작완성하자는 그의 호소에 그들은 하나같이 호응해나섰다.

사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석탄공업부문의 본보기기계공장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이 공장에는 크고작은 탄광설비부속품과 10여가지 소공구들을 련합기업소탄광들에 생산공급할수 있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여있었다.

공장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김성일, 기사장 최명수, 과장 로순찬, 설계원 주광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권양기제작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새로운 권양기제작사업에서 공장에서 품을 들여 꾸려놓은 과학기술보급실이 큰 은을 내였다. 공장이 생겨 처음 진행하는 권양기제작사업이였지만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해 풍부한 자료기지를 리용하니 기술준비사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였다. 기술자들은 해당한 기술자료들을 얻은데 기초하여 모의실험을 거듭하면서 설계를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설비제작전투에 참가한 생산자들 역시 하루 1시간이상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면서 설계상의 요구를 자기자신의것으로 습득하였으며 현장경험에 기초한 합리적인 가공 및 제작방도도 착상해냈다.

그리하여 치차카프링과 축을 비롯한 감속장치의 주요부분품들과 원통 등 권양기의 모든 요소들을 높은 짐견딜성과 권양능력에 맞게 제작할수 있는 기술준비가 짧은 기간에 원만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이 현장에 수시로 내려와 주물품생산량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권양기제작에서 걸린 고리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의 새 제품개발전투를 고무추동해주었다.

절국 제작전투가 시작되여 불과 몇달이라는 기간에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200hp권양기를 제작완성하여 서창청년탄광에 보내주었다.

이 성과에 토대하여 공장에서는 평안남도당위원회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200hp권양기를 제렬로 생산할수 있는 기술적토대를 충분히 갖추었다. 현재 덕천탄광에 보낸 또 한대의 200hp권양기제작전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70일전투기간 수백대의 탄차를 한달동안에 생산보장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총정의 200일전투의 첫달인 6월에도 500대의 탄차를 생산하였다.

막장소공구로부터 탄차와 이제는 200hp권양기까지 제작하여 석탄증산투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공장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이동식압축기도 자체로 만들어 탄광들에 보내줄 목표밑에 공격전의 불김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실리있는 생산공정 확립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립화학공장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총정의 200일전투를 기세좋게 벌려나가는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최근 신립화학공장에는 과수지를 리용하는 말과용자재생산공정이 확립되였다.

새로 꾸려진 공정은 주원료를 수지로부터 파수지로 전환하고 보다 적은 전기와 자재, 로력으로 같은 생산면적에서 제품의 생산성을 2배이상 높일수 있도록 집약화되였다. 여기서 생산되는 말과용자재는 종전것보다 피복두께가 1/2이면서도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갱막장들의 말과작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높은 질을 보장한것으로 하여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불리한 생산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더 많은 말과용자재를 생산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는 공장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안홍철, 리룡진, 한철순동무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주원료를 대용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풀어나가면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이 과정에 지난 시기 환경에 일정한 영향을 주던 여러 기술공정들이 없어지고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작업이 일체화된 흐름식생산공정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또한 피복수지혼합물가열작업에 소비되던 전기를 쓰지 않고 무연탄으로 가열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면실줄의 량을 종전의 1/2로 줄이는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결과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전기, 자재, 로력절약형의 새로운 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나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정책적요구를 어느 하나도 놓침없이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리하여 오늘 공장에서는 비둘기들이 날아예고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늘어나 구내의 풍치를 한층 돋구고있으며 양어, 축산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생산현장에서 찾은 증산예비

백바위광산의 일군들

200일전투의 시작과 더불어 백바위광산의 일군들은 모두 현장의 광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들이댔다. 마그네사이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제끼려는 광부들의 열의는 나날이 높아갔다. 그럴수록 광산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비상한 창조정신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규석과 희토류광물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는 경제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하루빨리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마그네샤크링카공업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자, 이런 드높은 각오밑에 지배인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5개년전략수행기간 광산이 점령해야 할 목표부터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웠다. 그에 기초하여 200일전투목표점령을 위한 월별, 일별계획을 분석해보았다. 어러모로 따져보니 높이 세웠던 70일전투때의 일정계획에 비해 1.2배이상의 광물생산량을 기록해야 하였다.

일군들은 즉시 광부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광부들과 함께 지혜를 합치며 증산의 방도를 찾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광산적인 광물생산의 많은 몫을 맡고있는 직동갱에 내려간 일군들은 채굴속도를 높일수 있는 기본방도의 하나를 발파효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각이한 암질조건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창안하는데로 대중을 이끌었다.

직동갱의 광부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합치는 과정에 적은 폭약을 쓰면서도 발파효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혁신적인 발파방법을 창안하였다. 기존관념을 깨버리고 하루에 3배에 달하는 광석을 떨굴수 있게 하는 새 발파방법의 도입이야말로 광석증산의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직동갱에서는 교대마다 더 높은 증산목표를 내걸게 되였다.

이들의 혁신적인 목표가 실현되자면 운광을 담당한 황철갱에서 보조를 맞추어야 했다. 황철갱 운전사들속에 들어간 일군들은 직동갱 광부들이 높이 내세운 결의목표를 알려주면서 그들을 증송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운전사들은 자동차의 정비시간을 교대마다 30분이상 줄이고 예비부속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여 실동률을 높일것을 결의해나섰다.

이를 계기로 모든 갱, 직장마다에서 생산자들이 증산예비를 찾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고 교대별, 개인별로 결의목표들이 세워졌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벌린 일군들의 진취적인 화선지휘는 이렇게 높이 세운 광산적인 200일전투목표를 수행할수 있는 돌파구를 광부들자신이 스스로 찾는 과정으로 되였다.

광산당조직에서는 단위별로 스스로 내세운 전투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모든 갱, 직장들에서는 개인별, 소대별로 경쟁도표판을 만들어 게시하고 매일매일의 실적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는 제도를 세웠다. 현장실정에 맞게 벌어지는 총화모임을 계기로 모든 생산자들은 경쟁도표판의 붉은 줄의 높이이자 곧 당에 대한 자신들의 충정의 높이라는 자각을 떠새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군 했다.

일군들의 이런 화선지휘가 심화되는 속에 200일전투성과는 나날이 확대되였다. 절국 광산적인 6월계획을 괴광, 채준, 운반, 박토 등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공업총생산액계획도 2배이상 완수하는 자랑찬 위훈이 창조되였다.

지금 광산에서는 200일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낼 신심에 넘쳐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은 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가능성과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현실성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화선지휘를 기백있게 벌려나간다면 200일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지보도반

결사관철로 열어제낀 돌격로

청천강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

혁신으로 날이 가고 창조로 동트는 청천강화력발전소에 격전의 분분초초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엄마전 새벽 3시, 삼라만상이 깊은 잠에 든 그 시각 청천강화력발전소 타빈직장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아직도 타는듯 한 열기를 확확 내뿜고있는 타빈동체, 300℃가 훨씬 넘는 공기온도,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는 비좁은 내부공간… 보통상식으로는 한순간도 견디여내기 어려운 바로 그속에서 묵묵히 불꽃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과연 이들은 누구들이며 무엇을 위해 이 위험천만한 곳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담적, 전국가적힘을 넣어야 합니다.》

운영중에 있던 2호타빈에서 뜻밖에 이상요소가 나타난것은 밤교대작업이 한창이던 때였다. 종전방식대로 타빈을 보수정비하자면 어차피 오랜 시간 생산을 멈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타빈동체를 충분히 식히는데만도 3일은 실히 걸려야 했던것이다.

숨결이 찾아드는 2호타빈앞에 전기타빈보수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하나둘 모여섰다. 요란한 격식이나 열변을 토하는 선동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눈앞에는 발전소로동계급이 무쇠주먹을 높이 들어 스스로 정한 월전투목표가 량심의 거울처럼 뚜렷이 안겨왔다. 불밤은 창가마다 흘러넘칠 이들의 웃음소리며 주체비료를 가득 싣고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으로 줄기차게 내달릴 수송렬차의 힘찬 기적소리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이 한몸 광그리 불태워서라도 2호타빈의 숨결을 지켜내야 한다.

서로서로 억세게 틀어잡은 손길마다에, 번뜩이며 주고받는 눈빛마다에 용암처럼 뜨거운 애국충정의 열기가 차고넘쳤다.

직장초급일군들인 김동수, 차명섭동무가 결사전의 앞장에 섰다. 바줄에 매달린채로 슴막히는 타빈동체안의 비좁은 공간을 한치한치 더듬으며 불량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를 그몇번… 드디여 이상요소들이 모두 확정되고 보수방법과 일정이 구체적으로 세워졌다. 30여명의 보수공들이 앞을 다투어 떨쳐일어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갔다.

박남칠, 김창일, 림광주동무들이 전투조직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짜고들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생명의 위협도 아랑곳없이 불랑개소들을 퇴치해나가는 이들의 모습은 한목숨바쳐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던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군상그대로였다. 전기타빈보수직장의 모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히 박차며 전투장마다에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펼쳐갔다.

한초한초… 결사전의 120분간은 이렇게 흘러갔다.

마침내 종전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었던 그 악조건에서 2호타빈의 주요보수과제가 불과 2시간만에 성과적으로 수행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깊은 밤 남모르게 큰일을 해제낀 이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였다.

비록 화려한 꽃다발이나 요란한 축하는 받지 않았어도 증산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는 타빈을 바라보며 서로서로 어깨성을 쌓은 이들의 가슴마다에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발전소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였다는 크나큰 희열과 자부심이 용암마냥 세차게 고패치고있었다.

정녕 누가 보전말전, 알아주건말건 말로써가 아니라 헌신적인 실천행동으로 어머니조국의 강성번영에 참담게 이바지해가는 이들이야말로 시대와 인민이 바라는 결사관철의 전위투사, 참된 애국자들이다.

하기에 화력발전부문전으로 70일전투목표를 제일먼저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을 떨친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200일전투의 첫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해 만리마속도로 더욱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현지보도반

현지보도

육탄정신 나래친다

서창청년탄광 조군실청년돌격대 막장에서

여기는 치렬한 굴진전투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서창청년탄광 조군실청년돌격대의 막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지금 이곳 지하막장에서는 총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새 세대 청년굴진공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새 구역조업공사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와—와—》, 압축기가 내쏘는 힘찬 바람소리가 귀전을 스치고 착암기들의 드센 동음도 심장의 벽을 팡팡 두드린다. 수천척지하막장,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절로 쉽게만 부를수 없다. 동발사이로 삐쭉삐쭉 드러난 크기를 알수 없는 바위들, 수시로 떨어지는 석수, 억년 잠을 깨우며 나타난 개척자들의 앞을 가로막아나선 천연암벽… 험산준령의 지맥밑으로 깊숙이 뱀어들어온 바로 이곳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청년강국의 미더운 주인공들이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자랑찬 굴진성과로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억척같이 받들어가고있다.

《뚜루룩, 뚜루룩… 》, 중기관총의 어무진 련발사격소리인양 힘찬 동음을 울리는 착암기를 틀어잡고 대장 강철남동무와 함봉철동무가 떡 버티고선 암벽을 향해 세찬 공격을 들이댄다. 이들의 가슴마다에 전화의 나날 조군실영웅처럼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일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할 불타는 의지가 활화산마냥 세차게 끓어번진다. 그 기상인양 번뜩이는 안전등불빛들이 목표를 놓아주지 않는다. 한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근 10개의 발파구멍을 뚫는 소문난 굴진명수들이다.

3교대의 굴진공들이 짬바러 가운데 통구멍을 내고 도끼와 지레대로 동발을 드리며 함마와 곡괭이로 바닥면을 닦을 때 좌측으로 뱀어간 막장에서도 변희용, 문금학동무들이 돌격선에 나선 화선병사의 자세로 암벽에 발파구멍을 내고있다. 정머리가 깊숙이 뚫고들어갈수록 굳은 바위가 부서져 절축한 돌물이 되여 흘러내린다. 혁신자로 자랑높은 발파공이 능숙한 솜씨로 구멍마다 잴짜게 폭약을 장약한다.

잠시후 《쿵, 쿵쿵…》 하고 울리는 발파소리, 막장이 통채로 들썩인다. 오랜 세월 검은금을 감추고있던 암벽이 통채로 무너져내린다. 막장은 또 한걸음 전진한다.

《지금 우리들의 심장마다에는 청년들을 백두산대국의 맹장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믿음에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보답하려는 하나의 열망만이 강렬하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755m의 굴진목표를 무조건 앞당겨 점령하고 년산 수만t능력의 기름진 새 탄밭을 기어이 마련하겠습니다.》

또다시 착암기를 틀어쥔 대장 강철남동무가 청춘의 패기와 열정에 넘쳐 말한다.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진군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가며 백두산대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가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맹장들의 육탄정신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석탄증산을 위한 비약의 대통로가 줄기차게 뻗어나간다.

현지보도반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성애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현대판 《을사오적》들의 만고죄악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금 온 겨레가 남조선지역에 미국의 살인장비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작정한 박근혜패당의 매국배족적행위를 두고 분노로 치를 떨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패당의 이번 망동을 미국에 굴종하여 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현대판을사오적의 행보》, 《치명적이고 망국적인 선택》, 《국민안보에 전쟁이상의 위협을 가져온 대재앙》 등으로 단죄규탄하면서 《싸드》 배치결정을 전면 백지화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하루아침에 《싸드》 배치지로 락인되여 날벼락을 맞은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은 박근혜의 친미굴종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피로 새긴 《싸드배치 결사반대》 구호를 추켜들고 단식농성을 비롯한 완강한 투쟁에 돌입하였다.

남조선전역이 벌통지를 쑤셔놓은듯 벌석 끓고있는 가운데 《싸드》 배치로 미국의 더욱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에 직면하게 된 주변나라들의 반발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있다.

하지만 사태의 장본인인 박근혜패당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북핵과 미싸일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니,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니 하는 당치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내외의 반격을 피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 《이제는 싸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론쟁을 멈추어달라.》고 궤쳐대며 여론을 눅잦히려 하는 한편 《싸드》 배치를 될수록 빨리 끝내라고 졸개들을 몰아대고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박근혜야말로 동족대결과 북침야망실현에 미친대로 미쳐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시슴없이 팔아먹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까지 거침없이 파괴하는 희세의 사대매국노, 전쟁사환군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예고되는 오늘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굴종하여 천인공노할 매국배족적행위를 감행한 박근혜역적패당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립장을 밝힌다.

박근혜패당이 강행추진하는 《싸드》 배치놀음은 승냥이의 손을 빌어 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통족의 핵보검을 없애보겠다는 극악무도한 대결망동이다.

박근혜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도 무릅쓰고 《싸드》 배치를 강행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의 핵보유국지위가 날로 공고화되고 제년의 《선 비핵화》 나발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미국을 등에 업고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여보려는것이 박근혜의 간특한 계략이다.

특동천미주구인 박근혜가 청와대안방에 들어앉아있을 때 써먹을수 있는껏 써먹어보려는 상전과 그 마지가뱅이를 붙잡고 기어이 《북핵포기》 기도를 실현해보려는 창녀가 서로 배꼽이 맞아 이루어진 밀실흥정이 바로 이번 《싸드》 배치결정이다.

통족을 압살하고 《흡수통일》의 개꿈을 실현할수만 있다면 그 어떤것도 서슴지 않으며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민족의 소중한 자산까지도 스스로 원쑤에게 섬겨바치는 이런 추악한 매국악녀를 세상은 아직 본적이 없을것이다.

박근혜는 미국의 《싸드》 로대뒤에 숨으면 죄많은 제 목숨도 건지고 통괴되여가는 통치체제도 수습할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리고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싸드》 배치결정의 장본인인 박근혜가 외세에 빌붙어 통족압살에 발악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위적핵무장력은 질량적으로 더더욱 강화될것이며 자비를 모르는 시슬푸른 정의의 비수는 만고역적의 숨통을 면바로 찔게 될것임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패당이 이번에 저지른 죄악은 70년이상이나 남조선을 불법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영구강점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분렬을 더욱 지속시키는 특등매국범죄이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하루속히 끝장내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상전의 《싸드》 배치요구를 덥석 받아들임으로써 남강도 미제가 남조선에 영원히 틀고앉을 또 하나의 구실을 제공해주었다.

미국본토에도 겨우 몇개밖에 없고 해외에는 아직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싸드》 포대를 남조선에 배치한다는 사실만 놓고서도 이번에 박근혜가 감행한 친미굴종과 매국행위가 얼마나 엄청난것인지 잘 알수 있다.

더우기 《싸드》라는 전쟁괴물이 들고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대대손손 대를 묻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가차없이 한지로 내몰리우고 인민들의 피땀이 고인 막대한 혈세를 기지건설과 유지에 쏟아붓게 되였으니 온 남조선땅이 울분을 토하지 않을수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권과 리익을 고수하기 위해 치렬한 경쟁을 하고있는 때에 오히려 외세에게 자기 땅을 꺼리낌없이 내여주며 전쟁사환군노릇을 하고있는 박근혜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재앙거리이다.

애비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조작으로 제2의 리완용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면 그 딸은 뒤질세라 《싸드》 배치결정으로 미국의 영구강점과 민족분렬의 지속을 위한 또 하나의 대못을 박아놓았으니 과시 역적의 피는 속일수도 거역할수도 없는 모양이다.

강산이 열백번 변하고 세월이 천만년 흘러도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역적집안의 더러운 죄악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것이며 대를 두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남조선에서 강행추진되는 《싸드》 배치는 귀중한 우리의 강토를 대국들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외세의 손에 겨레의 운명이 란도질당하도록 내맡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면 동북아시아전역을 핵초준경안에 넣고 항시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기도가 보다 현실화되게 되며 그 정치군사적후과는 실로 엄청나다.

지역과 세계의 평화애호력량이 미국의 《싸드》 배치기도를 강하게 문제시하고 피뢰침이 상전의 거듭되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선뜻 응해나서지 못한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싸드》 배치강행에 대응하여 주변나라들의 실질적인 군사적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 남조선은 대국들간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갈등과 마찰의 한복판에 설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간의 우발적충돌이 일어난다면 임의의 순간에 《싸드》를 겨냥한 국적불명의 핵타격수단이 날아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이 당할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외신들이 남조선이야말로 지역의 《가장 위험한 지뢰밭》으로 되였으며 《싸드》 배치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바보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천하에 불도 없는 천치, 일개 매국역적때문에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이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피해를 당하고 우리의 소중한 조국강토가 대국들의 아귀다툼에 의해 짓뭉개지게 될 참혹한 현실을 과연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강위력한 자위적힘을 보유한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 민족이 지난 세기와 같은 피눈물나는 수난과 비극에 또다시 말려들수는 없다.

리성과 분별이 있고 평화와 안전을 귀중히 여긴다면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자신들의 존엄과 리익, 생존과 운명을 걸고 떨쳐일어나 한줌도 못되는 매국의 무리들을 매장해버려야 하며 조선반도의 통일과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는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힘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조선반도를 외세의 핵전장으로 섬겨바치며 동족대결과 친미굴종의 추악한 행적을 력사에 다시금 남긴 박근혜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배족의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가장 처절하게 치르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7월 14일
평 양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자

이런 참된 인간들이 혁명의 만년재보를 지켜간다

평성시혁명전적지관리소 소장 한미옥동무와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두해전 1월 어느날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았던 평안남도구호문헌관(당시)의 종업원들은 격동된 마음을 안고 단위에 돌아서고있었다.

종업원들이 전적지를 돌아본 소감을 두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 관장 한미옥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겨 국사봉혁명전적지로 향하고있었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혁명전적지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라고 하시며 전적지들의 관리운영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한미옥동무는 종업원들과 마주앉아 밤이 깊도록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혁명전적지의 구호문헌영구보존과 관련한 문제, 나무심기, 현지에 전적지관리원들의 휴게실을 꾸리기 위한 사업…

이런 일이 있은 후 이곳 종업원들의 일본새와 기풍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놀라울 정도로 성과도 컸다.

한미옥동무와 종업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발하였다.

어느해 겨울 한미옥동무는 한 단위의 종업원들이 전적지가까이에서 작업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날 점심식사도 건너뛰고 수십리를 달려 단위에 나타난 한미옥동무를 대하게 된 그곳 일군은 무척 놀랐다.

성에가 하얗게 끼인 눈섭과 목도리, 파랗게 질려 떨고있는 입술…

《어서빨리 종업원들을 철수시켜주십시오. 그들이 일하는 가까이에 우리가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혁명의 만년재보가 있습니다.》

마디마디 준절하게 울리는 그 목소리에 일군은 머리를 숙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통나무를 가득 실은 한대의 화물차가 관리소로 들어섰다. 차안에서는 뜻밖에도 얼마전에 만났던 그 단위의 책임일군이 내리였다. 그는 곧장 한미옥동무에게로 다가와 자책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종업원들은 어제 전적지를 돌아보며 구호문헌들의 글발들을 한자한자 심장에 새기였습니다. …이 통나무들을 전적지를 더 잘 꾸리는데 써주십시오.》

늘 혁명전적지에 마음을 얹고 살며 일하는 이곳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눈이 그칠새없이 쏟아져내리던 어느날 한미옥동무는 김성호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과 함께 당화산혁명전적지로 급히 향하였다.

그들이 어느 한 구호나무에 이르렀을 때였다. 문득 머리우에서 눈덩어리들이 떨어져 발치에 닿았다. 올려다보니 온몸에 눈을 뜰쓴 관리원 리양국동무가 구호나무 옆나무에 올라 눈을 털어내고있었다. 한미옥동무는 안전막을 씌운 구호문헌을 바라보았다.

《독립후 김대장을 최고령수로 녀장수를 녀사로 광명성을 미래로 우리 민족 존엄 떨치자》

저기에서는 한점의 눈도 찾아볼수 없었다. 한미옥동무의 눈길이 다시금 리양국동무에게로 향하였다. 어쩐지 가슴에 뜨거운것이 찌르르 젖어드는것을 느끼였다.

구호문헌을 지켜 한밤을 지새웠을 관리원, 늘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명부를 보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처럼 살며 일하겠다고 결의하던 그였다.

그러느라니 당세포위원장 정영석동무가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느해 이른아침 장마철을 앞두고 리양국동무가 전적지참관도로의 열도랑치기작업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등뒤에서 바래주던 안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산으로 오르기를 이제는 10년이 넘었는데…》

그 말에 리양국동무는 조용히 뇌이였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만년재보가 바로 나의 일터에 있지 않소.》

이렇게 말하고나서 그는 일터를 향해 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비바람이 몹시 불어치던 어느날 저녁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미옥동무는 창문을 연채 때없이 번개를 치는 하늘을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있었다. 그때 그의 마음은 국사봉혁명전적지로 달리고있었다.

느닷없이 그의 눈길이 팔목으로 향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가 자기를 재촉하는것만 같았다. 그러느라니 20여년전 조선지식인대회에 참가하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던 영광의 그날이 우렷이 안겨왔다.

그는 곧 길떠날 차비를 하였다. 안해의 심정을 알아챈 변활식동무가 전지와 비옷을 안해의 손에 들려주며 물었다.

《곧 가야겠소?》

한생 말없이 안해의 일을 도와준 옛 록발물치리대원의 정겨운 시선이 등에 닿자 한미옥동무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가야겠어요. 어쩐지 우리 동무들곁에 가야 마음이 편할것 같군요.》

변활식동무는 멀어져가는 안해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최녀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도혁명사적관에서 강사로 첫걸음을 내짚은 때로부터 수십년을 혁명사적부문에서 일해오고있는 안해의 됨됨을 잘 알고있는 그였다. 오늘의 안해의 모습은 강사들과 함께 도안의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대한 이동강의활동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또다시 현지로 떠나던 그때의 그 모습이였다.

소장의 일본새와 기풍은 그대로 관리소의 종업원들에게로 이어졌다.

당화산혁명전적지의 리양국, 국사봉혁명전적지의 신선호, 봉린산혁명전적지의 김진국, 청룡산혁명전적지의 리준길, 리인범, 김상근동무를 비롯한 관리원들은 나무모밭을 정히 마련하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자래워 전적지구역에 심고 자체의 힘으로 계단들을 만들어 참판도로에 정성껏 깔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편없이 참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어느날 강사 리광옥동무가 준비한 강의안을 한장한장 번지던 한미옥동무는 눈빛을 흐리였다. 강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이다.

한미옥동무는 리광옥동무에게 《우리 오늘 봉린산혁명전적지에 가보는것이 어때요?》하고 말하며 앞장에서 걸었다.

울창한 수림이 우거진 전적지의 경사급한 길을 오르는 리광옥동무의 이마에는 어느덧 땀방이 내돋았다. 얼마간 걸었을가, 머리를 드니 그들의 눈앞에 나무에 씌여진 구호들이 안겨왔다.

《국내동포들에게 고함 김대장렬씨산 조선독립 위하여 국내출전독전》, 《백두의 넋이은 항일녀장수 축지법 정안지에 닿았다》…

한미옥동무는 혼자소리처럼 《혁명선렬들이 저 구호들을 쓰며 우리 후대들에게서 무엇을 바랐을가요?》하고 뇌이였다.

리광옥동무는 머리가 숙어졌다. 늘 혁명적구호문헌들을 묵숨바쳐 지켜낸 무재봉의 영웅들처럼 살며 일하자고 곱씹어 말하던 소장, 이동강의의 나날 뜻하지 않은 일로 땀을 잃은 슬픔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강사들을 고무해주던 일군이였다.

《강의안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한미옥동무는 종업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군 한다.

《세상에 혁명의 만년재보를 간직하고있는 우리의 일터처럼 중요하고 영예로운 초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언제나 이 긍지를 가슴에 안고 살며 일합시다.》

본사기자 현경철

한장의 편지가 전하는 사연

얼마전 우리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일하는 혁신자부부인 길명철, 최봉화동무들이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게 되였다. 우리는 편지에서 정법한 로동자를 위해 키워낸 김만유병원 심장외과 의사들과 간호원들의 정성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어느날 오래동안 앓고있던 길명철동무의 심장병이 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길명철동무를 병원으로 떠밀었지만 그는 일터를 뜨지 않았다. 공장의 일군들이 달려와서야 그는 김만유병원으로 떠나게 되였다. 김만유병원의 의료일군들은 환자를 즉시 입원시키고 긴급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환자의 병상태는 몹시 위급하였다. 그때 심장외과 과장 조광호동무는 가슴을 조이며 서있는 길명철동무의 안해 최봉화동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원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방직공장로동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환자를 위해 정성을 다 바쳤다.

그 나날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펴났던가.

환자를 위해 자기의 피도 서슴없이 바친 담당의사 리정근동무며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의 머리맡에 갖가지 식료품들을 남몰래 가져다놓군 하던 의사들과 간호원들…

이런 불보다 뜨거운 정성, 친혈육의 정이 있어 길명철동무는 수십일만에 완쾌되어 자기 초소로 떠날수 있게 되였다.

그들은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았다. 그가 퇴원하던 날 김만유병원 심장외과의 의료일군들은 길명철동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더 많은 천을 생산하여 우리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주십시오.》

병원문을 나서며 길명철, 최봉화동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이처럼 훌륭한 보건제도를 마련해준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고마움의 눈물이였고 더 많은 천을 생산할 맹세의 눈물이였다. …

전적지를 읽어가는 우리의 가슴도 뜨거움으로 젖어들었다.

우리의 눈앞에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초소를 지켜가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것은 수많은 혁신자, 위훈자들과 어깨나란히 충정의 200일전투를 벌려나가고있는 참된 애국자들의 모습이였다.

신철

순간도 비울수 없는 초소

린산농업기상관측소 예측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는 들끓는 격전장들에서만 창조되는것이 아니다. 일터는 크지 않아도 참된 주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크나큰 위훈이 창조될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황해북도기상수문분국 린산농업기상관측소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였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일터이지만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크다. 특히 농업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에서는 기상관측자료들이 없이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신속정확성과 과학성은 예측원들의 엄격한 사업준칙이다.

지난 4월초에도 기상관측소에서는 린산지방에 마지막서리가 있게 된다는것을 군에 제때에 알려주어 농작물피해를 미리 막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실례는 수없이 많다.

그 하나하나의 관측자료들을 위해 남모르는 길을 걷는 그들의 수고를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일이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가 예측원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난다.

이런 일은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시기 근청년동맹위원회에서 사업하다가 린산농업기상관측소 소장으로 일하게 된 김춘애동무에게 있어서 기상관측소는 처음 생각했던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바람의 속도와 방향, 구름의 모양과 높이, 대기온도와 습도 등 수십가지나 되는 기상요소들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분석하는 일이 그에게는 도저히 성차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초소를 꼭 지켜야 한다는, 순간도 비울수 없는 중요한 일터라는 량심과 자각은 그로 하여금 20년을 하루와 같이 살수 있게 하였다.

몇해전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로향경동무가 어머니와 한초소에 섰다.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김춘애, 조은하, 최금향동무를 비롯한 예측원들은 녀성들의 힘으로 기상관측소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꾸려놓았으며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나날에 기상관측소는 군에서 없어서는 한될 작고도 큰 일터로 되였다.

오늘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것은 환하게 꾸려진 일터도 그러하지만 누가 보건말건 세월의 눈비를 달게 맞으며 자기 일터를 변함없이 지켜가는 참된 주인들의 성실한 일본새와 고상한 정신세계때문일것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인민의 사랑을 받는 봉사자들

중구역연료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구역연료사업소에서처럼,

이것은 구역안의 일군들이 참가하는 모임때마다 중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입에서 종종 들려나오는 말이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높이 받들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은 물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에서도 앞장서고있는 연료사업소는 구역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인민생활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래전부터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왔다. 특히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그들은 구역안의 거의 모든 공급소들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고 분쇄기, 성형기들과 저열탄연소첨가제도 새로 만들어 구멍탄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

수십세대를 헤아리는 구역안의 전쟁로병, 영예군인세대들에 새 가스통을 보장해준 이야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감동깊은 사실들이 사업소의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과 200일전투기록장의 갈피마다에 아름답게 수놓아져있다. 그러나 헌신의 일화들은 비단 전투기록장들에만 새겨져있는것이 아니다.

지난 3월 어느날 밤 중구역 경상동의 한 주민세대에 구역연료사업소 초급당위원장 김화선동무와 공급원들이 찾아왔다. 내외가 다 직장일을 하는 그 세대에 땔감을 공급해주러 간것이였다. 집문앞에서 땔감을 공급받은 부부, 땀젖은 얼굴을 닦을념도 하지 않고 맡은 일들을 잘하기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종종걸음을 놓는 고마운 사람들을 바래우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결심을 다졌는지 구태여 적지 않는다. 아마도 혁신자로, 다기대공으로 집단의 속하속에 묻히던 그 시각 그들은 모름지기 자기들을 위해 밤길을 걸은 그 봉사자들의 모습도 그려보았을것이다.

그날 새벽녘에야 사업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화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70일전투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들을 위해 우리가 더 큰 짐을 지고 달리자.

오늘도 구역안의 주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며 이어지는 송탄봉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대한 지원도 통이 크게 진행하였다.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친자식, 한식솔이 되여준 황영심, 최성옥, 리신애, 박향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는 구역안의 전쟁로병, 영예군인 어느 가정에나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들이 혈육의 정을 다하여 돌봐준 전쟁로병, 영예군인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70일전투와 더불어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이 나오고 많은 혁신자, 발명가, 조선로동당원이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얼마전 어느 한 공급소의 종업원들은 외진함에 한장의 종이쪽지가 들어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펼쳐든 종이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급원들을 대할 때마다 맡은 일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군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구역 서문동 주민일동》

어느 단위, 어느 일터에나 전투기록장이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위훈과 혁신적성과들이 기록되여있다. 그 갈피에서 인민의 심부름군, 참된 충복으로 혁신과 위훈의 밑거름이 되여주는 훌륭한 봉사자들의 이름은 찾을수 없다. 그러나 인민은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없이 따사로운 우리 당의 사랑을 느끼는것이며 그에 보답할 불같은 맹세를 가다듬는것이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봉사자들, 이 부름에 삶의 보람도, 값높은 영예도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충정의 200일전투로 들끓는 시대적분위기를 반영한

우표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로 들끓는 시대적분위기를 반영한 우표(개별우표 1종)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의 웃부분에는 《모두다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라는 구호가 씌여져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모두다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건설자의 모습이 우표에 형상되여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는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2016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2016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14일 귀국하였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대북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였다.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몽골, 이란 등 19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녀자레스링 40kg급경기에 출전한 원명경선수와 남자자유형 42kg급경기에 출전한 김명수선수는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체육전사로 준비하기 위해 훈련을 통하여 익혀온 자기의 특기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이김으로써 각각 1등을 하고 금메달들을 쟁취하였다.

황은희선수는 녀자레스링 43kg급경기에서 은메달을, 한현송선수는 남자자유형 46kg급경기에서, 조순철선수는 남자고전형 42kg급경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받았다.

평양역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리종무체육상, 관계부문 일군들, 가족들이 선수, 감독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과 대학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돌아온 그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원명경, 김명수선수

그 어떤 궤변으로도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로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평양 7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각종 중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반입하여 이 지역의 정세를 총돌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7월 10일 남조선언론들은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 7월 괴뢰합동참모본부와 모의관을 벌려놓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개인무기뿐아니라 중무기들도 끌어들일수 있도록 무기반입에 관한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를 개정하고 그해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실을 공개하였다.

새로운 《반입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공개된것만도 12.7㎜대구경기관총, 40㎜유탄기관포, 57㎜무반동포, 81㎜박격포 등을 포함한 각종 중무기들이 대대적으로 반입되였다고 한다.

로골적인 정전협정파괴행위로 인하여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로 변하고 예측불가능한 군사적충돌국면에 항시적으로 놓이게 된것은 철두철미 제2의 6.25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책동의 산물이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의 허울을 쓰고있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놈들은 저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마치 우리의 《무력증강》에 대한 《대응조치》로 되는듯이 터무니없는 궤변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적반하장과 흑백전도의 극치이다.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중무기들의 비무장지대반입이 우리 군대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떠들어대는것도 역겹기 그지없으며 이러한 정전협정파괴행위를 2년전부터 휘했다고 꾸며대는 기만적인 망발도 분격을 금할수 없는것이다.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전면적으로 파괴한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협정의 핵심조항파괴에 달라붙은것이 남강도 미국이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그 어떤 중무기도 반입할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적대행위를 감행할수 없음을 명기한 정전협정 제1조 6항과 10항, 그 부속합의사항을 제멋대로 유린한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조선정외로부터 그 어떠한 중무장장비 및 탄약의 반입도 금지하게 되여있는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ㄹ목을 포기, 파괴하는것을 공식 선포한것도 정전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묵침엽에 들든 도발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하다못해 나중에는 정전감독기구까지 깨버렸으며 수많은 중무기들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륙무기들을 남조선전역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도 례외로 되지 않았으며 이 지역에 끌어들인 중무기들은 정세를 위기일발의 지경에로 몰아간 무모한 총포사격도발의 기본수단으로 되였다.

오늘 세계최대열점지역으로 공인된 조선반도의 분단선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긴장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있는것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수많은 중무기들을 끌어들여 위험천만한 대결과 전쟁국면을 조성하고있기때문이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중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군사적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비무장지대는 유명무실하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전쟁도발의 전초선으로 화하게 될것이다.

바로 이것이 침략의 원흉, 도발의 주범들이 노리는 기도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후안무치한 날강도, 흉악무도한 침략자인 미국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겉으로는 《정전협정준수》와 《긴장완화》를 넘불처럼 외워대면서도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화함으로써 북과 남의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려 하고있다.

원래 민족간, 나라간 내부분쟁과 동란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식으로 저들의 침략목적을 손쉽게 달성하려 하는것은 미국의 고질화된 수법이다.

그것은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의 《한강이남이전》을 다그치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흉계실현에 적극 동참하여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발광하는것이 바로 박근혜역적패당인것이다.

력사는 공정하며 진실은 가리울수 없다.

범죄자들이 사실을 오도하고 현실을 기만하려들수록 자기의 추악한 진면모만 더욱 날날이 드러내게 될뿐이다.

지금 우리 군대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무시로 감행되는 적들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준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처참한 개죽음을 면하려거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중무기들을 철수시키고 각종 군사적도발행위들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중국에 가는 사회과학원대표단 출발

중국에 가는 서광웅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과학원대표단이 1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곽형철 사회과학원 부원장이 전송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신영근학부장과 오성우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신길웅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발휘된 훌륭한 기풍

신의주시 일군들의 사업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200일전투의 불길속에 온 나라에는 교육중시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고있다.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기간에도 교육중시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학교들을 본보기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수십개의 농촌학교들이 국가망가입을 위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도록 한 신의주시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주목된다.

작전도 실천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시의 교육사업이 종전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눈에 띄는 전변을 가져오기 시작한것은 몇년전부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몇해전 9월 어느날 저녁, 시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오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시당책임일군과 한자리에 마주앉은 시인의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흥분의 빛이 력력했다.

그도그럴것이 그처럼 뜻깊은 회의연단에서 시당책임일군은 시인의 모든 교육일군들이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 새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주센 기둥감으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던것이다. 그것이 어찌 시당책임일군만의 결의였으랴.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던 바로 그때 후대교육사업을 토의하는 중대한 회의를 소집해주시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이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심장을 파고들수록 당앞에 다진 맹세를 빛나게 실천하여 교육사업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 불같은 열의가 일군들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달아오르게 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눈으로 시의 교육사업을 두시해보았다. 쫓겨나는 법입니다.》

시당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는 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유능한 기술자들로 전설력량이 보강되여 힘찬 전투가 벌어지는 속에 많은 량의 타일을 해결해가지고 온 책임일군의 모습은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주었다.

그 나날 다른 단위들에 보내주기로 계획됐던 자재들도 학교개건공사에 먼저 돌려졌고 학교의 후원단체들을 발동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실속있게 진행되였다.

책임일군은 바쁜 속에서도 하루에도 몇번씩 학교개건현장에 나오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현장에 나와서는 좋은 형성안도 함께 선정하고 교실출입문을 교체하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교장의 마음을 헤아려 수십개나 되는 새 출입문도 해결해주었으며 수십대의 콤푸레를 단번에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애쓴 보람이 있어 학교의 면모는 날마다 달라져갔다. 강당과 교사들에 색철판기와를 씌우고 타일을 붙인데 이어 방대한 내부공사도 손색없이 진행하였다. 교양마당에 보도블로크도 산뜻하게 깔고 그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도 정성껏 심었다.

그야말로 몰라보게 달라진 교정의 새 모습을 바라보는 교직원들과 학생들, 학부형들의 입에서는 찬탄이 터져나왔다. 기쁨넘친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시일군들의 보람은 더없이 컸다.

령도업적단위인 김금순고급중학교에도 시당책임일군의 발자욱이 수시로 찍혀졌다. 교장이 먼길을 다니며 화강석과 세멘트 등을 해결해오면서 개건공사를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는것을 알고는 현장에 나와 학교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수많은 자재들을 해결해주면서 적극 고무해주었다.

강당에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다 앉을수 있게 좋은 방도도 내놓는 책임일군의 주인다운 태도는 학교개건전투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할수 있게 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다. 오늘날 이 학교는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일신하고 본보기학교로 앞장서나가고있다.

이렇게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일신시킨 본보기학교들의 모습은 시안의 많은 단위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전시기에는 말은 교육단위들에 한하여 교육설비나 몇대 해결해주고 꾸리기사업도 출석이나 긋는 식으로 대치하던 일군들이 이 일을 계기로 심각한 자책속에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새롭게 분발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런 실례는 시안의 학교들에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시당일군들이 앞재를 메고 훌륭하게 개건한 룡우유공장도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높이에 자신들을 따라세우려는 이곳 일군들의 불타는 열정을 보여주는 축도라고 할수 있다.

10여년전 공기좋고 샘물이 나오는 명당자리에 룡우유공장이 멋쟁이로 일떠섰을 때 신의주시 인민들은 후대들을 위해 또 하나의 좋은 일을 찾아한 일군들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렇게 일떠세운 공장은 지난 기간 시안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젖줄기와도 같은 룡우유를 수많이 공급해왔다. 그것으로 만족해왔던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시의 일군들이 새삼스러운 눈으로 공장을 바라본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주체103(2014)년 12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에 접했을 때였다.

공장을 찾으시여 식료품생산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공장제품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린이영양식품들을 대비분석하여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인민군대 식료공장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하여야 한다고 그렇듯 높은 목표를 제시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길수록 자그마한 성과에 쉽게 만족을 느끼였던 자신들에 대해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룡우유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기 위한 전투는 이런 사연속에 시작되게 되였다.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완공할 높은 목표가 세워졌다. 방대한 품이 드는 개건공사였지만 앞재를 든든히 틀어잡은 시당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공사는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여갔다.

이들은 생산현장바닥에 에록시수지칠감도장을 하고 수지창문설치와 타일붙이기작업 등을 진행하여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켰으며 실험실과 분석실도 손색없이 꾸려놓고 룡우유의 질을 개선해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일군들의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은 교육사업을 담당한 교육자들에 대한 태도와 관점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신의주시는 교육자들의 생활조건보장을 시당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잘하고있는 지역들중의 하나이다. 교원상점을 잘 꾸리고 생활필수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으며 편의봉사부문에서 교원들에게 우선봉사하도록 하는 사업 등 교원들을 우대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시당위원회가 항시적으로 관심하고 총화하는 중요문제로 되고있다.

특히 교원들이 명절날과 기념일들을 보다 뜻깊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시당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있으며 일군들이 교육자가정들에 자주 찾아가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는것을 관례화하고있다.

시당책임일군이 시안의 교육일군들의 생일날은 물론 설명절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때마다 년하장과 축하장도 보내주고 전화를 걸어 축하해주군 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느 교육단위를 찾아도 들을수 있다.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소학교 수운도분교에서 처녀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년세월을 후대교육사업에 전심해온 로교원에게 시의 일군들이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준 사실도 그러한 이야기들중의 하나이다.

신의주시는 교육자들의 생활조건보장을 시당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잘하고있는 지역들중의 하나이다. 교원상점을 잘 꾸리고 생활필수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으며 편의봉사부문에서 교원들에게 우선봉사하도록 하는 사업 등 교원들을 우대해주기 위한 사업들이 시당위원회가 항시적으로 관심하고 총화하는 중요문제로 되고있다.

특히 교원들이 명절날과 기념일들을 보다 뜻깊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시당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있으며 일군들이 교육자가정들에 자주 찾아가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는것을 관례화하고있다.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왼심을 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최근년간 교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체계와 내용,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지만 아직 전반적교육수준 특히 중등일반교육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중등교육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지난 시기 전국에 소문을 낸 교육단위들도 많지만 농촌학교들의 물질적토대도 튼튼하게 갖추어놓고 중등교육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여나가고있는 신의주시의 교육사업은 확실히 경험적이다.

시에는 수십개나 되는 농촌지역 학교들이 있다. 시당책임일군이 농촌지역 학교들에 대해 특별히 마음을 쓰게 된것은 어느 한 리를 돌아보면서 받은 충격에서부터였다.

그때 중제고급중학교와 중제소학교를 돌아보는 책임일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얼마전에 보았던 시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들과 너무도 차이나는 광경이였다. 그것을 단지 도시와 농촌의 차이로만 보겠는가.

책임일군은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은 도시나 농촌이나 가림없이 따사롭게 흘러드는데 왜 농촌지역 학생들이라고 도시의 학생들보다 뒤떨어진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 성장해야 하는가.

그는 이 문제를 당의 후대사랑을 받드는 일군들의 태도와 관점문제라고 보았다.

이를 계기로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농촌학교들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며 중요하게는 빠른 기간안에 농촌학교들의 물질적토대를 도시학교들의 수준에 끌어올릴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목표를 세웠다고 하여 모든 일이 다 잘되는것은 아니다. 일부 일군들이 농촌학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중제고급중학교와 중제소학교를 자신이 직접 맡아안았다.

어느날 학교꾸리기사업을 위해 밤잠마저 잊고 뛰어다니는 그에게 시당의 한 일군이 그런것은 다른 일군에게 과업을 주어도 되지 않는가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 학교에서 나의 자식이나 동무의 자식이 공부한다면 그래도 팔짱을 끼고앉아 지켜보겠소? 그 애들은 다 우리 당이 아끼는 앞날의 기둥감들이요. 그뿐니 그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소.》

이것이 시당책임일군의 진정이였다.

바쁜 일들이 밤낮없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책임일군은 사무실에 앉아 개건정형을 알아보는 방법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팔을 걷어붙이고 설계도 보아주고 자재보장도 따라세우며 말그대로 몸을 죽 잠그고 매달아주었다.

이에 고무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불리한 겨울철작업조건이였지만 비닐박막을 치고 층막공사와 지붕공사를 끝낸데 이어 미장작업과 출입문, 창문교체작업을 립체적으로 진행해나갔다.

공사가 끝나갈무렵 학교들에 수많은 새 책걸상과 함께 콤푸레와 액정텔레비존을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이 그윽하게 갖추어졌다. 그리고 벽체들에 외장재를 바르고 실험실습실들과 복도벽마다 새 직관등들을 걸어놓았다. 중제고급중학교와 중제소학교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지개벽되였다.

학교를 돌아보는 시일군들과 여러 단위 책임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

농촌학교라고 하여 개건사업을 대충 하려는 경향이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땜때기식으로가 아니라 래일을 내다보며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자고 호소하는 책임일군의 절절한 목소리는 이렇게 말로써가 아니라 눈앞의 산 현실로 모두의 심장에 새겨졌다.

이를 계기로 일군들의 자각과 열의는 더욱더 높아졌다.

하여 이들은 수십개의 농촌학교들에 대한 개건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하나와 같이 일신시키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훌륭하게 꾸려진 학교들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내는 농장원들의 감동은 컸다. 그들은 멀고 가까운 곳 가림없이 따뜻하게 비치는 당의 해빛같은 사랑을 폐부로 느끼며 더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해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최상의 경지에서 받들려는 신념이 확고하면 무슨 일에서나 방도가 생기고 좋은 착상도 떠오르는 법이다. 이곳 시에서 이채롭게 진행하고있는 자매학교운영사업은 시당위원회일군들이 중등교육수준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진지하게 기울인 사색과 헌신적인 열정이 낳은 좋은 경험이다.

그 운영내용을 보면 교육사업에서 앞서나가는 시내학교들이 뒤떨어진 농촌학교들을 하나씩 맡아 도와주면서 이끌어주는것이다. 시에서는 이 사업이 더 큰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해 회의때마다 자매학교의 교장들이 나란히 앉아 교육사업과 관련한 정가와 총화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다나니 이 사업은 자연히 학교들사이의 말없는 경쟁으로 넘어갔다. 시내학교들에서는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과 교수경험 등을 농촌학교들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도와주어 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여주었고 또 농촌학교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시내학교들에 보내주는것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에 도움이 되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벌려나갔다. 그 과정에 교육자들은 나날이 정이 깊어졌고 이것은 그대로 교육사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불씨로 되였다.

신의주시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에서도 시의 교육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는것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모든 지역의 일군들이 신의주시 일군들처럼 교육사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확고한 립장에서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진심으로 받들어갈 때 21세기 교육강국건설의 우렁찬 포성은 더 힘차게 강산을 진감하게 될것이며 그것은 최후승리의 촉보성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 진 형
본사기자 김 명 훈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공개편지를 보낸 해외의 단체 및 개별인사들

【평양 7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 해외의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다시 보냈다.

공개편지를 보낸 단체 및 개별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를 비롯한 5개 단체

— 일본지역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일본지역본부를 비롯한 4개 단체

— 중국지역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중국지역위원회와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 김경갑 중국 심양조선족련의회 회장과 오장권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부회장을 비롯한 6명

— 아메리카지역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미국지역본부, 재미동포전국련합회를 비롯한 16개 단체, 국제대권도련맹 전 총재 최홍희선생의 유가족과 김상환 세계절핵제로운동본부 부총재를 비롯한 83명

— 유럽지역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를 비롯한 4개 단체, 김혼 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장과 남창규 《유럽한인총련합회》 회장을 비롯한 10명

— 독립국가협동체지역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독립국가협동체지역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를 비롯한 21개 단체, 김찬성 로씨야극가회의 대의원과 김영웅 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상급연구사를 비롯한 68명

— 오세안주지역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오세안지역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오세안주지역본부를 비롯한 4개 단체, 천용수 오스트랄리아 코스트그룹 회장과 박기석 오스트랄리아 멜보른종합대학 조선어연구소 소장

— 동남아시아지역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김 종 혼 찍음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개편지에 접한 재유럽동포들은 지난 5일 도이췰란드 떼플린에서 전민족대회합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족대회합의 성과적개최를 위한 유럽지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들은 성명에서 우리 공화국이 제안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야말로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풀어나갈수 있는 매우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지지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 겨레가 수치스러운 분렬사를 마감하고 력사의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족의 오늘과 래일을 생각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전민족대회합에 적극 참가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결성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유럽지역준비위원회에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 《한민족유럽련대》, 《다 함께 사는 세상》, 세계물흙길련맹을 비롯한 여러 동포조직들과 개별인사들이 망라되였다.

유럽지역준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준비위원장
리종현 《한민족유럽련대》 상임고문
리한경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부회장

부위원장
리지숙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장
김진향 《한민족유럽련대》 회장
리준식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유럽지역본부 의장
석순자 《다 함께 사는 세상》 회장

위원
장일중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명예회장
림원섭 세계물흙길련맹 대표
최태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회원
오복자 《한민족유럽련대》 회원
강무의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선경석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변정옥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사무국장
리영우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형규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유영자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위원
한정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감사
림용일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윤윤섭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회원
윤영락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회원
윤무근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김대천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회원

이밖에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활동하고있는 여러 동포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이 유럽지역준비위원회에 망라되기를 희망하여 참가신청을 계속해오고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지역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준비사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주체105(2016)년 7월 14일
평 양

소문없이 일잘하는 집단

림업성 자재상사 자강도분상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림업성 자재상사 자강도분상사는 자그마한 단위이지만 자강도림업관리국의 통나무, 동발나무, 천나무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는 전투력이 강한 집단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상사에서는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 70일전투기간 통나무, 동발나무, 천나무생산목표를 훨씬 넘쳐 수행한데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헌신적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상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70일전투기간에만도 많은 량의 연유, 륜전기재부속품, 세멘트 등을 마련하여 자강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 보내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이곳 일군들의 높은 책임성과 전투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7년전 도림업관리국의 일군으로 일하던 김판성동무는 당의 신임에 의해 림업성 자재상사 자강도분상사 사장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그때까지만도 상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지금처럼 원만하지 못하였다. 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요구되는 연유, 자재를 상사를 통해 공급받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통나무, 동발나무, 천나무생산에서는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이러한 실태를 알게 된 김판성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그는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을 돌봐주는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땔감문제를 풀기 위해 수백리 떨어진 탄광으로 나갔고 기와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들을 찾아다녔다.

종업원들을 위해 기울인 김판성동무의 남모르는 수고는 참으로 헌신적이였다. 종업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였고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더욱 높아졌다.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연유와 자재를 제때에 받아다 도림업관리국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들에 공급하자고 하니 륜전기재가 부족하였다. 상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고 힘을 합쳐 륜전기재수리기지를 꾸려놓고 고장난 자동차들을 살려내면서 성능이 좋은 지게차도 마련해놓았다.

이들은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태심으로 3년동안 헌신적투쟁을 벌려 상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졌다.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관하는 9개의 자재창고를 재질과 용도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해놓았다. 그리고 8개의 차고와 함께 종업원회의실, 문화후생시설, 태양열온실, 온실식촉산기지를 일떠세웠고 드넓은 마당을 콩크리트로 포장하였다. 그리고 상사주변에 백수십그루의 과일나무도 심고 가꾸었다.

몇해전 겨울이였다. 회천갱목생산사업소에 들린 김판성동무는 멈춰서있는 뜨락또르를 보게 되였다. 눈덮인 산판에서 용을 써야 할 뜨락또르가 부속품이 보장되지 못해 서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판성동무는 수입에 의존하던 바퀴사슬을 자체로 만들어낼 결심을 안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찾아가 필요한 강재를 해결해왔다.

그리고 관리국의 어느 한 공장 로동자들과 함심하여 능률적인 설비를 차려놓고 바퀴사슬을 기어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여 상사에서는 자동차, 뜨락또르에 요구되는 바퀴사슬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상사의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륜전기재들의 부속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사장 김판성동무와 초급당위원장 박춘호동무는 늘 출장을 다니는 인수원들과 운전사들의 가정생활을 제 집일처럼 도와주었다.

한 인수원의 안해가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한 집안식구처럼 병구완을 해주었고 종업원들의 자식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에는 제 자식을 초소로 떠나보내듯 역에까지 나가 기념품도 안겨주며 그들을 바래워주군 하였다.

이처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일군들을 어찌 종업원들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겠는가.

오늘도 상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도림업관리국의 생산계획수행이 자기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극악무도한 반통일죄악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괴뢰패당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대화제의를 놓고 계속 허튼나발을 불어대고있다. 박근혜는 20대 《국회》개원식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서 우리의 대화제의가 그 무슨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느니 뭐니 하고 수작질하면서 갖은 대결악담을 오물처럼 쏟아냈다. 집권자의 뒤를 이어 졸개들도 련일 《남남갈등조장》을 노린 《통일전선공세》, 《위장평화공세》 등으로 악의에 차서 헐뜯고있다. 가는 혀에 오는 흉두깨격으로 놀아대는 괴뢰패당의 무지무도한 도발적망동에 온 민족이 끓어오르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의 대화제의와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머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대화를 거부하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온갖 구실을 붙여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을 한사코 가로막고 《대북압박》공세의 강화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반민족적기도의 발로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당국은 동족의 성의있는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끈덕지게 도전해나선 극악한 반통일범죄집단이다.

우리는 언제나 사상과 제도우에 민족이 있다는 철리를 신조로 삼고있다.

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 북과 남이 손잡고 대결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며 판계개선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 북녘은 대화와 협상제안을 내놓고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 최근에만 놓고보아도 우리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과국적인 현 북남관계를 군사적대결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일념으로부터 파거를 불문하고 남조선당국에 선의의 손길을 내밀었고 실천적인 대화제안도 거듭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어린 대화제의를 남조선당국은 《비핵화가 없는 선전공세》로 매도하면서 《선 비핵화, 후 대화》나발을 불어댔다. 그리고 군무깡패들을 내몰아 고의적인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정세를 다시금 격화시켜 대화분위기를 해치고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대결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악랄한 흉심에 따른것이다. 지금도 괴뢰당국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와 관련한 우리의 제의에 등을 돌리고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고 고아대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현실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판계개선을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고질적인 악습과 반통일적인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의 사실을 놓고보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지난해에 우리는 정초부터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안아오려는 통이 큰 결단으로부터 남조선당국에 동족을 반대하는 체제대결책동과 외세와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박근혜일당은 우리의 진정과 성의가 깃든 노력에 대해 머무니없이 헐뜯으면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였으며 서울 한복판에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의 소굴인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설치하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나중에는 겨레의 통일열망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8월에 그 무슨 《지뢰폭발》사건이라는 모략극을 조작하고 그것을 기화로 하여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심리모략방송과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대결미치광이들의 이런 악랄한 반통일책동때문에 그때마다 북남대화의 기회는 파괴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은 날로 격화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초보적인 량심이 있다면 남을 걸고들기 전에 저들의 대결망동이 몰아온 과국적후과부터 돌이켜보고 늦게라도 민족을 위한 옳바른 선택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괴뢰패당이 저들의 반민족적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도리여 우리의 대화제의에 대해 그 무슨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헐뜯는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의 파렴치한 망동이다. 현실은 괴뢰당국자들에게 북남관계의 현 과국적사태를 바로잡고 대화의 문을 열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으며 이자들이 추구하고있는것은 오로지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는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대북정책》은 북남대화를 반대하고 우리의 그 무슨 《변화》와 《핵포기》를 실현하며 《제재통일》야망을 이루기 위한 극악무도한 대결정책이다. 괴뢰들이 《신뢰프로세스》가 《북핵을 용납할수 없고 도발과 위협에 대해 보상이 없으며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는것》이라고 떠벌인것을 놓고도 그의 대결적정체를 알수 있는것이다.

괴뢰들은 이 악명높은 대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껏 그 무슨 《북에 끌려다니지 않는 원칙》, 《북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 등을 운운하며 북남관계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괴뢰패당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거듭되는 노력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화전망면전술》이라느니 하고 헐뜯으며 랭담하게 외면한것 그리고 회담대표의 《격》문제를 들고나와 당국회담을 파탄시키고 북남관계해결을 선언한 《5. 24조치》에 줄곧 매달리며 대화와 협력의 길에 무거운 차단봉을 내린것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남조선괴뢰당국자들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거부하며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의 반공화국압살을 노린 공조강화로 《북핵포기》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이다.

괴뢰집권자자체가 입만 벌리면 《북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느니, 《북핵포기》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제재와 압박》이라느니 하며 비린청을 돋구고있다. 괴뢰통일부 장관도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라는 수단을 통해 《북의 변화를 끌어내야 할 때》라고 고아대며 외세와의 《대북압박》공조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릴 속심을 드러냈다. 괴뢰당국의 추태를 지켜보며 온 겨레는 동족의 대화와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도전하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추악한 매국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다시금 깨닫고있다.

괴뢰당국자들이 제아무리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을 헐뜯으며 대결에 광분해도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자주통일지향과 의지를 가로막을수 없고 저들의 악랄한 반통일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조장하는 도발적망동을 걷어치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성의있는 노력에 호응해나와야 할것이다.

라 설 하

테로주범들의 유치한 모략소동

남조선괴뢰당국이 그 무슨 《북의 테로가능성》이라는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박근혜는 《국무회의》라는것을 소집해놓고 《북이 여러가지 테로를 시도》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이보다 앞서 괴뢰국무총리도 《북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랍치》하거나 《테로를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징후가 포착된지 오래다.》고 정신병자의 잠꼬대같은 수작을 내뱉았다. 지금 괴뢰패당은 보수언론들과 《대북전문가》로 자처하는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내몰아 《북테로》설을 적극 여론화하고있다. 그야말로 모략의 능수, 동족에 대한 모해에 이골이 난 대결미치광이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입은 삐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라는 말이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각종 테로사건들이 련이어 발생하고있는 속에 남조선은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의 표적이 되여 사회전반에 테로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급격히 확대되고있다.

이것을 놓고 괴뢰패당은 그 누구를 탓할것이 못된다. 남조선에서 만연되는 테로공포는 세계제패의 야망밑에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는 미국주도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에 맹목적으로 가담해나선 남조선당국의 추악한 친미사대굴종행위가 빚어낸 필연적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결국 남조선을 테로공포증이 만연된 지대로, 《이슬람교국가》의 테로공격대상으로 만든 장본인은 괴뢰당국이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외세와 야합하여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기운을 더욱 고취해보려고 터무니없는 《북테로》설을 꾸며내며 동족에 대한 극도의 대결의식을 고취하고있는 괴뢰패당의 불순한 정치적음모책동에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도발적인 망동은 우리에 대한 병적인 지부감과 적대감에 사로잡혀있는 대결미치광이들의 역겨운 추태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테로의 왕초, 랍치의 주범들이 감히 우리를 걸고드는것은 정신병자들의 발광증으로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실 테로와 랍치문제를 놓고 따지고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박근혜패당에게 대고 해야 할 소리이다.

《동까모》와 같은 극악무도한 테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들이밀어 우리의 제도에 대한 중상모독행위 지어 최고존엄을 감히 해치기 위한 흉대형테로행위까지 기도하고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치떨리는 유인, 강제랍치범죄행위를 백주에 감행하고도 그에 대해 사죄하고 랍치피해자들을 돌려보낼 대신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깡패무리들이 누구인가. 더러운 정치적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온 남조선땅에 《유신》파쑈시대의 정치테로, 백색테로를 부활시키고 정치적반대파들에게 《종북》이니, 《이적》이니 하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가차없이 숙청, 제거해버리는 극악한 독재광들이 박근혜패당이 아니란 말인가.

최근 감행된 괴뢰정보원깡패들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유인랍치만행은 박근혜패당이야말로 정치테로와 모략의 능수들이라는것을 다시금 적라라하게 보여주었다. 민족을 반역하고 인륜을 파괴하며 동족을 겨냥한 테로와 랍치행위를 엄으로 삼고있는 범죄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테로》니, 《랍치》니 하면서 나발질인가.

괴뢰패당이 제아무리 《북의 테로가능성》을 목터지게 고아대도 그런 유치한 모략과 천박한 녀무리질에 넘어갈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통파산에 직면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부지하고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발악하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우리 인민의 보복열기만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그것을 거역하는 반역무리는 징벌을 면치 못한다.

괴뢰패당은 유치하고 비렬한 모략광대극으로 얻을것이란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 남 수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자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진행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중앙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가 7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용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청 중앙위원들 등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최상최대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강령적인 5월25일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제일주의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갈데 대한 총련중앙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결정을 앞장서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토의되였다.

김용주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결성 60돐 기념대회앞으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도록 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군대표단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대표단성원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에 고무된 동포청년들이 조청결성 60돐 기념사업을 전동맹적으로 힘있게 벌린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청결성 60돐기념 동포청년축전을 비롯하여 조청중앙과 본부, 지부에서 조직진행한 기념사업에 수많은 동포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새 단계에 들어선 애족애국운동의 요구에 맞게 조청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총련의 지부경쟁에 발맞추어 대중운동 《이어》를 전개하며 3대애국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해나갈데 대한 과업과 대책들을 밝혔다.

조청일군들이 시대앞에 지닌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으로 그 어떤 억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호소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전지가 랑독되였다.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

《생존권 위협하는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한다!》

남조선에서 항의투쟁 격렬히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경상북도 성주군의 주민들이 13일 미국의 《싸드》배치결정을 반대하는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괴뢰패당이 《싸드》를 성주군에 배치할것을 결정한데 대해 공표하자 《싸드》성주배치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5 000여명의 군주민들의 참가하에 궐기집회를 가진 다음 대표단을 구성하여 괴뢰국방부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싸드결사반대》라는 머리띠를 두른 대표단성원들은 2만 5 000명의 주민들과 《의회》의원들, 군수 등이 서명한 항의문을 괴뢰국방부 차관에게 들이대며 장관이 직접 나와 성주군에 《싸드》를 배치할것을 결정하게 된 리유를 말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국방부가 성주군 주민들을 짐승취급하듯 협의 한번없이 《싸드》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격분에 넘쳐 단죄하였다.

국방부가 결정은 결정대로 다 해놓고 부하들을 보내여 설명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납득할수 있겠는가고 그들은 항의하였다.

《싸드》배치는 남조선민중이 아니라 미군기지를 지키기 위한것이라고 그들은 까발렸다.

그들은 국방부가 《싸드》배치를 결정한것을 보면 남조선의 국방부인지 미국의 국방부인지 알수 없다고 규탄하였다.

《싸드》배치결정으로 하여 성주군 주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이 닥쳐오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들은 배치결정과 관련한 설명을 듣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을 취소하게 하는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결사반대!》, 《생존권 위협하는 싸드배치를 결사반대한다!》, 《성주군민의 일방적희생을 강요하는 싸드배치 강력히 규탄한다!》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한편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3일 미국과 괴뢰패당의 《싸드》배치결정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단체는 괴뢰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군당국이 경상북도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발표한데 대해 성토하였다.

《싸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이땅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되고 주변나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여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신랭전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단체는 특히 경상북도 성주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파괴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싸드》배치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는 광화문거리에서 《싸드》배치결정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단체는 《싸드》배치결정철회를 주장하는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망동짓이라고 주장하였다.

《싸드》가 배치될 곳은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배치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그들은 요구하였다.

단체는 《싸드》배치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로씨야외무성 성명 발표

로씨야외무성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배비를 반대하여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싸드》배비가 그 어떤 론거로도 통할수 없으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는것은 물론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조선반도비핵화를 포함한 복잡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씨야는 초기부터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하게 될 위험한 후과에 대해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성명은 미국이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의 아시아태평양구성요소를 계속 강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그 경외에서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동북아시아지역과 그 경외에서 비극적이며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중국외교부

미국의 《싸드》배비를 강력히 반대

중국외교부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배비를 반대하여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중국측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명확한 반대립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싸드》를 배비하기로 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조선반도의 정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리롭지 않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측의 노력에 배치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중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나라들의 전략적안전리익과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엄중히 해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이 《싸드》배비과정을 중지하고 지역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지 말며 중국의 전략적안전리익에 손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일굴종행위를 일삼고있는 박근혜 패당은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대답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를 덮어버리려는 박근혜패당의 친일매국행위가 또다시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패당이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위한 탕국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망동을 부려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패당이 예산삭감책동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탕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나서서라도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세계유산등재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고있다.

박근혜패당의 이번 망동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일본의 과거죄악을 묻어버리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매족행위이다.

지금 일본의 피비린내나는 과거사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라와 민족, 아시아대륙을 벗어나 전세계에로 확대되고있다.

원래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의 유네스코등재사업은 괴뢰당국이 남조선 각계층의 압력에 못이겨 일본군성노예범죄자료들을 체계화하여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명목으로 민간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며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일본반동들과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를 백지화하는 굴욕적인 《위안부합의》라는것을 뻣기 바쁘게 《유네스코등재는 민간몫》이니 뭐니 하며 언제 그랬던가싶게 아닌보살하고있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박근혜패당이 일본반동들이 먼저주는 몇푼의 돈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가 다 해결된듯이 여론을 호도하며 《판권개선》을 떠들고있는것이다.

과연 20만명에 달하는 우리 녀성들의 꽃다운 청춘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일본반동들의 치떨리는 죄행이 몇푼의 돈과 바꿀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피비린내나는 남경대학살자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까지 등재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유네스코분담금의 지급중단가능성이니, 기록유산등재제도변경요구니 하며 이를 가로막아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반력사적행위에 편승하여 력대 괴뢰통치배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일본군성노예범죄백지화를 강행하려는것이야말로 애비때부터 친일에 찌들고 일본에 멸시당공해온 《가문》에서 자라온 박근혜년만이 감행할수 있는 추악한 사대매국행위이다.

가슴아픈 쓰라린 과거와 일본의 범죄적만행을 안류앞에 날날이 고발하는것은 오늘날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적극 지지해나서야 할 전민족적인 사업이다.

박근혜패당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일본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고 제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일제가 감행한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는 백년, 천년이 흐른다 해도 절대로 묻어버릴수 없다.

박근혜패당의 반민족적인 친일매국죄악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우리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일본의 과거죄악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의의 길에서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다.

미국 《오하이오》호전략잠수함을 부산항에 투입

남조선 《국민일보》에 의하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13일 부산항에 기여들었다. 미국 워싱톤주에 모항을 두고 괌도에 전진배치되여있는 이 함선은 지난 6월말 일본에 기항한데 이어 이번에 남조선에 배비되였다.

미국은 이미 《스테니스》호와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들과 《미씨씨피》호핵동력잠수함, 《B-52H》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각종 전략자산들을 남조선주변에 끌어들였다.

미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에로의 끊임없는 투입은 미국이 오는 8월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벌려놓게 될 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기어코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올것을 획책하고있으며 그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조선중앙통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패거리들의 란동

최근 남조선에서 악질보수단체들이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면서 반민족적망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련대》,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악질보수단체들이 그 무슨 《좌편향된 관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사법정의감시센터》라는것을 조작한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악질보수분자인 류동렬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은 그 무슨 《사법정의감시센터 창립토론회 및 1차 감시보고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일부 세력이 안보수사기관사업을 방해》한다느니,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느니 하고 줴쳐대면서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한편 《바른사회 시민회의》라는 한 보수단체는 우리 인원들에 대한 괴뢰정보원의 범죄적인 유인랍치만행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민변》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있다고 걸고들면서 검찰당국에 고발하는 추태를 부렸다.

남조선과 같은 추악한 반동의 소굴에서 각종 보수단체들이 생겨나 활개를 치는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남조선에서 국우보수단체들이 지금처럼 기세가 올라 제세상처럼 날친적은 없었다. 보수미치광이들은 미국과의 그 무슨 《동맹관계》에 대해 떠들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결사반대해나섰는가 하면 《북방한계선사수》를 줴치며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였다. 그리고 진보적인 인사들과 정당들을 《친북파파》로 몰아대며 《종북세력척결》소동에 미쳐날뛰였다. 심지어 이자들은 깡패들을 긁어모아 《애국기동단》이라는 폭력단체까지 만들고 진보세력을 공공연히 위협공갈하는가 하면 군사분계선일대에 뻗질나게 기여나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삐라살포놀음에 악질적으로 매달림으로써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켜왔다.

남조선에서 국우보수단체들이 이처럼 반공화국대결에 살기등등해 날뛰는것은 괴뢰당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기때문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보면 남조선의 괴뢰통치배들은 보수단체들을 북남대결과 독재정치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면서 온갖 범죄적망동을 부렸다. 하지만 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이 고조되면서 국우보수단체들은 쇠퇴몰락의 길을 걷게 되였으며 6.15통일시대에는 각계의 통일열기에 놀리워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말았다. 그런데 최근년간 북남대결에 환장한 보수《정권》들이 등장하면서 보수단체들은 살 때를 만난듯이 날뛰고있다.

남조선의 국우보수떨거지들은 괴뢰집권세력의 배후조종과 지원밑에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지지하는 집회와 시위놀음을 벌리는가 하면 동족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을 박해하는 망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그 대표적인 국우보수단체는 《어버이련합》이다.

얼마전 청와대가 《전경련》(《전국경제인련합회》)을 내세워 《어버이련합》에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악질보수단체를 구구 써먹어온 사실이 폭로되였다. 괴뢰패당은 《어버이련합》에 돈만이 아니라 당국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진보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활동자료까지 넘겨주었다고 한다.

집권세력의 이런 적극적인 후원밑에 《어버이련합》의 보수떨거지들과 돈에 매수된 인간쓰레기들은 진보단체들의 반《정부》투쟁이 벌어지는 곳마다에 나타나 당국의 반인민적정책들을 지지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추태를 부리군 하였다. 특히 《어버이련합》의 우두머리인 추선희라는자는 청와대의 지시밑에 동족을 모해하는 온갖 비렬한 악행과 도발적망동을 서슴없이 감행한것은 물론 당국이 먹여준 자금중에서 숱한 돈을 떼먹은 더러운자이다.

최근에는 괴뢰당국이 《어버이련합》의 활동을 경찰까지 동원하여 지원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이 공개한데 의하면 경찰은 다른 단체들이 집회를 열려면 최소한 48시간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어버이련합》패거리들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보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각종 구실을 붙여가며 방해하면서도 국우보수분자들의 집회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승인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야당들은 《어버이련합》과 보수당국사이의 공모결탁관계를 하루빨리 파헤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얼마전 괴뢰검찰당국은 각계의 압력에 못이겨 《전경련》이 《어버이련합》에 숱한 자금을 부정적으로 제공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회피하고있다. 청와대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패거리들이 달리 처신할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 진보단체들은 《어버이련합》을 비롯한 국우보수단체들을 청와대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면서 그것들의 정체를 철저히 파헤치고 지체없이 해체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괴뢰집권세력은 저들과 《어버이련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들과의 결탁관계를 한사코 부인하면서 또다시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사실들은 괴뢰패당이 권력을 유지하고 동족대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버이련합》과 같은 산송장무리들에게까지 기대를 걸면서 국우보수단체들과 결탁하여 매국과 반역에 갈수록 미쳐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우보수단체들에 의거하여 정치적잔명을 유지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박근혜패당의 망동은 사실상 시대와 인민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죽어가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며 파쑈독재와 북남대결에 광분하는 괴뢰보수패당이 분노한 민심의 총폭발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리 성 호

ㄱ-61113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